

검사선발방안

법무부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1기 졸업생에 대한 검사임용방식을 로스쿨원장 추천과 성적에 의한 선발로 이원화하기로 한 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.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해명보도를 내놓았다.

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법무부는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선발할 예정임
 - 다만, 구체적인 검사 임용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, 향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방침임
- (2)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검사 임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로스쿨의 설립 취지 및 다른 나라의 사례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
- (3) 일부 언론에 보도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천에 의한 검사의 임용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에게 검찰청 심화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고 추천받은 학생들을 바로 검사로 임용한다는 것은 아니며,
 - 추천받은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, 검찰청의 심화 실무수습 성적 및 심층면접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이나,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을 뿐임